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52:7-10
2026 년 8 월 30 일 오전 11 시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주여 도우소서 >

아가서는 결혼을 앞두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직유법을 사용하여 노래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아 4:1). 눈의 아름다움은 비둘기에, 머리털의 아름다움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에 비유합니다. 가지런하고 흰 치아의 아름다움은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암양 떼에 비유합니다.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아 4:2). 붉은 입술은 홍색 실에, 붉게 물든 뺨은 석류 한 쪽에 비유합니다.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아 4:3).

신부의 가늘고 긴 목은 망대에 비유합니다.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아 4:4). 가슴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아 4:5). 배꼽과 허리도 칭송합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아 7:2). 다리도 칭찬합니다.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아 7:1 하반절). 그런데 발을 노래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아 7:1 상반절). 맨발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발’로 번역된 히브리어 פְּאִמִּים(pe‘āmîm)은 ‘발걸음’

또는 ‘걸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의 생김새만을 칭찬기보다, 신을 신고 움직이는 신부의 우아한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복음의 세 가지 내용

어쩌면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발이 아름답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발레리나라 하더라도 그 발까지 아름답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라는 사진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수진의 발은 여기저기 물집과 굳은살이 잡혀 있었고, 오랜 연습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 주는 강수진의 모습은 한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 발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발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의 모양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발에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고통을 견디고 연습한 세월의 흔적이 그 발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겉모양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발이 걸어온 길과 그 발이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아름답다고 불리는 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발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좋은 소식’은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εὐαγγέλιο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속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특별히 물속에 몸을 잠그는 침수례는 세례가 나타내는 죽음과 부활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히 몸에 물을 묻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에서 나온 다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확연히 다릅니다. 옛 사람은 죄에게 종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그러나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2.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

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 사람에게는 죄가 왕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옛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사 63:10).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반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도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교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 6:4-6).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 죄를 범하거나 넘어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통곡하며 회개했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쓸모없는 땅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 6:8). 히브리서는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지막 심판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그러나 어린양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일찍이 이사야도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사 52:1).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부정한 자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3. 순종하며 이루어 가는 구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 21:27).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교회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여기에는 선교와 교육의 사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야 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습니다. 강수진에게는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연습한 흔적이 새겨진 아름다운 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발이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라도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가는 발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가는 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입니다. 그 발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의 발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고, 낙심한 사람에게 평화를 가지고 가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걷고 또 걷다가,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이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